

사랑하는 교육대학원생 여러분

2학기 개강준비와 개강을 시작 하면서 걱정스러운 소식들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서울, 경기 수도권과 전 지역에서 코로나 19의 확산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매우 엄중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8월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9월 13일까지 1주간 더 연장하여 실내 10명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학 차원에서도 감염증 확산방지와 방역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학에서는 단국 구성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둔다는 원칙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계획 3단계인 2학기 개강부터 2주간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2학기를 준비하면서 캠퍼스의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교내 건물별 출입자를 검역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마쳤으나 지금의 상황으로는 학생 여러분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면수업을 강행하기보다 비대면 수업의 효과성과 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원우여러분,

코로나 19에 대응한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주어진 상황에서 학생과 구성원을 위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음을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목소리에는 이 기회를 빌려 위로와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2학기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학생여러분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대학원은 원생여러분을 위하여 필요한 일들을 지원해 나가고, 이 모든 상황이 잘 정리되어 2학기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학기에 입학하시는 원우여러분께는 입학과 동시에 환영식과 오리엔테이션도 없이 온라인수업을 받게 되어 충분한 학사정보의 제공과 입학의 기쁨을 함께하지 못해 아쉬움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빨리 안정이 되어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19로 시작된 여러 가지 경험하지 못한 변화는 뉴노멀(디지털시대에서 정상화)로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대학원에 던져진 화두는 우리에게 불어닥친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세계적인 글로벌 대학원으로 자리 잡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대학원 구성원 여러분의 협조와 응원을 더욱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우여러분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학업의 성취도 함께 이루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7일

교육대학원장 고 상 숙